

**○ 외환리포트**

<b>전일동향</b>	전일대비 4.60원 하락한 1,113.20원에 마감
-------------	------------------------------

26일 환율은 전일대비 4.60원 하락한 1,113.2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80원 내린 1,116.00원에 개장했다. 개장 후 환율은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달러화 약세에 하락세를 유지하였다. 코스피가 상승하고 외국인도 4거래일 만에 주식을 순매수하여 환율은 전일대비 4.60원 하락한 1,113.20원에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32.36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16.00	1117.00	1111.30	1113.20	1114.0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34.09	1035.35	1028.83	1029.61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52.01	1352.34	1342.52	1344.79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05	-0.82	-1.4	-2.61
	결제환율(수입)	0.1	0.35	0.58	0.82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b>금일 전망</b>	위험선호심리 회복과 국내 지표 호조에... 1,110원대 하향 돌파 시도 예상
--------------	---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2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13.20원) 대비 2.80원 내린 1,110.20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금일 환율은 FOMC 관망 속 위험선호심리 회복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상품통화 강세에 하락이 예상된다. 시장은 연준이 지난 주 캐나다중앙은행과 달리 긴축 시점에 대한 논의를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위험선호심리 회복으로 이어졌다. 구리 가격은 지난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등 주요 상품통화가 달러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지난 1분기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1.6% 성장하며 시장 예상을 넘는 호조를 보이면서 원화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를 비롯한 저가매수는 환율 하락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08.00 ~ 1114.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922.12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80원 ↓
	■ 美 다우지수 : 33981.57, -61.92p(-0.18%)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69.32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5077 억원

###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